

해외취재

캠퍼스타운과 COC 사업, 지역공헌을 대하는 다른 시선

〈서울시〉

〈일본〉

일본 대학 지역공헌

이수형 기자 dltbd112@khu.ac.kr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서 모집된 계획안들이 ‘청년창업 지원계획’에 그치면서 이 사업에 따른 대학의 지역사회공헌은 미비할 전망이다. 한편, 일본은 일찍이 COC(Center Of Community) 사업을 통해 대학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에 나서고 있어 캠퍼스타운 지원사업의 선례로 주목할 만하다.

서울시의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대학가 청년창업을 지원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활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년일자리 감소 등 청년문제와 학령인구감소, 재정사정악화 등 대학들이 당면한 문제,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특색을 잃은 대학가 상권의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 사업은 2025년까지 시 예산 1,520억 원이 투입되기로 계획된 대규모 대학지원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5월 1차 지원대학 선정을 마친 캠퍼스타운 지원사업은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이름을 바꿀까 할 지경이다. 캠퍼스타운 지원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대학가 상권활성화, 두 목표가 뒤엉켜 각 대학들의 사업계획안을 청년창업으로 귀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캠퍼스타운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

정된 13개 대학 중 3곳을 뺀 나머지는 모두 중심계획으로 창업 관련 강의개설 혹은 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획일화된 창업지원안을 내놨다. 창업지원안 외의 계획안은 지역 홍보행사 개최, 홍보영상 제작 등 굳이 대학이 도맡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업에 그친다. 우리대학의 중심사업은 여러 청년들이 한 점포에서 시간대 별로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공유상점’을 설치하는 것이다.

13개 대학 중 서울여자간호대와 성공회대, 그리고 케이씨대만이 지역사회공헌에 나섰다. 성공회대는 중국교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영등포구 지역특성을 고려해 다문화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활동 지원에 나섰다. 다문화 청소년들의 경력개발부터 일자리 제공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여자간호대는 간호대학의 의료역량을 살려 지역의 치매에 방에 집중한다. 동시에 액티브 시니어 주민 전문강사를 양성한다고 사업계획서에 밝혔다. 케이씨대는 강서구에 융복합 R&D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라는 것을 근거로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습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3년부터 대학의 사회공헌 지원사업인 COC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에서 2000년대 초반 지방분권일괄법 시행 이후 지역 자생력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는 대학과의 협력을 꾀한다.

대학명	핵심목표	사업명
경희대학교	창업육성	회기동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광운대학교	창업육성	지역공존·공감 창조경제 캠퍼스타운 조성(SNK-VITAMIN센터)
동국대학교	창업육성	남산골 창업·문화, 공생·공감·공유
동양미래대학교	창업육성	Re.Start Guro
서울대학교	창업육성	서울대 스타트업캠퍼스 “녹두.zip”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지역협력	지역밀착형 Well-aging 프로젝트
성공회대학교	지역협력	“마을은 대학으로, 대학은 마을로” 구로마을 대학
성균관대학교	창업육성	성균관대 청년 창업,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사업
숙명여자대학교	창업육성	전통과 문화로 미래를 창조하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인덕대학교	창업육성	청년창업거리 1·7·3 프로젝트
케이씨(KC)대학교	지역협력	강서구·KC대학 창의인재육성사업
한성대학교	문화특성화	한성성곽 캠퍼스타운
홍익대학교	창업육성	상상력을 디자인하는 홍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당시 일본의 대학들도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의존율 증가 등,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이 겪고 있는 것과 유사한 어려움에 처해 존재감 향상의 계기가 필요했다. 지역사회와 대학의 필요가 맞아떨어지면서 2000년 이후 지역사회와 대학의 협정체결 건수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 골자는 ‘지역과 대학의 연계로 마을개발을 추진하고, 실천적인 사회인을 육성하자’는 것으로, 서울시의 캠퍼스사업 목표와 일견 유사하다. 서울시의 사업 목표에 ‘청년 일자리 창출’이 있다는 점이 유일한 차이점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COC 사업을 통해 2013년 지역재생, 지역활성화 계획안을 전국 대학에 공모했다. 선정 대학에는 최대 5년간, 연간 최대 5,800만 엔을 지원하고 있다. 요코

“

대학은 지역사회에
기대고 있는 면이 크다.
지역공헌은 대학의 의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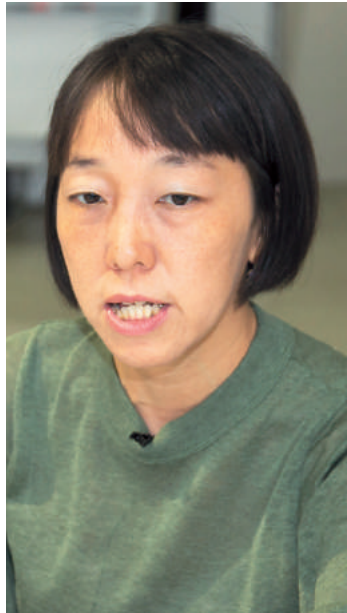
”

하마 시립대는 2013년 선정된 첫 해 15개 지역공헌 관련 강의를 개설했으며 2014년 102개 강의, 올해는 170개 가량의 강의를 운영 중이다. 이 중 특히 ‘마을 만들기’ 트랙은 우리 학교 시민교육과 유사한 형태로, 지역사회 과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을 만들기’ 담당 스즈키 노부하루 교수는 ‘마을 만들기’ 수업 결과의 성공적인 예시로 ‘코가네초 살리기’ 프로젝트를 든다. 코가네초 지역은 한때 사건사고가 빈번한 집촌으로 유명했고 지금은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있다. 요코타 케이스케 씨를 비롯한 학생들은 코가네초 지역의 지역 분위기를 해치는 외관을 가진 빈 집을 고치는 방식으로 환경개선을 시도했다고 한다. 스즈키 교수는 “학생의 아이디어나 연구결과가 시의 정책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자랑했다. 요코타 씨는 지역활동가가 되기 위해 현재 요코하마 시립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다. 요코타 씨는 “이제는 활동을 하고 있으면 지역 주민들이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신다”며 “언제는 톱을 쓰고 있으니 한 주민분이 전기톱을 들고 와 일을 다 해버리시더라”고 말했다. 요코타 씨는 지역뉴스를 전하는 웹 라디오를 1년 가량 진행했던 경험과 지역 축제에서 뱃놀이 이벤트를 했던 것 등

을 늘어놓으며 “주민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요코하마 시립대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익스텐션 강의’로 명명해 진행한다. 지난해 기준 140개 강좌가 열려 1년 동안 약 2만 명의 주민들을 가르쳤다. 또한, 지역관련 연구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나미끼 거점을 설치해 요코하마 변두리 지역을 개발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스즈키 교수는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대고 있는 면이 크다”며 “지역공헌은 대학의 의무다”라고 말한다. 또한, 스즈키 교수는 이 같은 생각이 일본대학의 보편적인 생각이라며 “일본 대학의 반 이상은 COC 사업과 연결돼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일본에선 2006년도, 교육기본법에 ‘대학은 교육·연구 성과를 널리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추가됐다. 공식적으로 ‘지역공헌’이 대학의 책무에 포함될 정도로 일본 대학들 사이에 지역공헌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스즈키 교수에 따르면 익스텐션 강의 역시 일본 대학가에선 보편적이다. 스즈키 교수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단이 캠퍼스타운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내게 자문을 구한 적이 있다”며 “서울시의 질문들이 모두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사안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요코하마 시립대 스즈키 노부하루 교수(왼쪽), 나미끼 거점(가운데), 나미끼 거점 담당 미와 노리에 교수(오른쪽)



지역 특징 맞춘 사회실험

일본 대학 지역공헌

이수형 기자 dltbd112@khu.ac.kr

인구 370만 명의 대도시인 요코하마시에는 1970년대 대규모 간척으로 만든 공업·주거지역이 곳곳에 있다. 그중 한 곳이 가나자와 나미끼 지구다. 당시 이주해 온 공업인력이 고령화되자 요코하마 주변은 초고령화와 함께 인구감소로 흥역을 잃었는데, 70년대에 공업인력이 이주해 온 후 인구유입 요인이 없었던 탓이다. 요코하마 시립대는 그곳에서 COC사업의 일환으로 ‘위성거점사업’이라 불리는 사회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위성거점 사업이란, 대학이 낙후 지역에 거점건물을 두고 지역재생에 관한 실험·연구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공업노동자들의 대규모 이주지

였던 나미끼는 이제 평균나이 65세의 한촌이다. 나미끼의 상점가 입구에 자리한 나미끼 거점은 요코하마 시립대의 지역공헌활동 거점공간이다. 나미끼 거점이 목표하는 것은 나미끼를 노인친화 마을로 만드는 것이다. 거점을 운영하는 미와 노리에 교수는 “젊은 사람을 마을로 돌아오게 하기 보단, 고령화를 얼마나 잘 진행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다. 노령에 접어들어서도 사회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가 가득한 마을을, 요코하마 대학은 노인친화 마을로 규정한다. 요코하마 시립대는 늙은 마을 나미끼에서 ‘나미끼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미와 교수는 “거점을 개설한 것은 대학이지만, 거점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주민이다”라고 말한다. 주민들이 주도해 공간을 꾸

미고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한 주민의 ‘모임장소가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으로 얼마 전까지 카페를 운영한 나미끼 거점에는 주방 기기가 정리되지 않았다. 라틴하프를 켤 줄 아는 주민이 라틴하프 교실을 열기도 했고, ‘후지쯔’에 근무했던 주민이 컴퓨터 관련 상담을 하기도 했다. 주민참여로 거점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나미끼 거점 ‘액티브 시니어’ 실험의 요지다. 가끔은 주민들이 문을 열고 개시한다는 나미끼 거점에서 미와 교수와 주민들은 실험을 계속해 나간다. 나미끼 거점의 최근 생긴 목표는 “마을에 핵가족이 늘어나 노인 부양도 어렵지만 육아에 곤란을 겪는 주민들이 많다”며 ‘마을 보육’ 연구에 나섰다. 마을이 공동으로 아이들을 키우자는 것이다. 미와 교수는 공공보육원 등 관련 인프라

확대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나미끼 거점 한 편에 아이들 놀이공간이 있는 것은 물론이다. 나미끼 거점은 요코하마 시립대 의학과와 협력해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마을 커뮤니티의 모임장소를 제공한다. 때로는 요코하마 시립대의 강의실이 되기도 한다. 요코하마 시립대의 지역활동가 양성 트랙인 ‘마을 만들기’ 수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은 나미끼 거점 인근의 빈 방에서 3박 4일 지내며 마을을 연구한다. 지난 학기에는 학생들이 ‘녹지를 휴식공간으로 개발하자’, ‘공업단지와 주거지를 가르는 산책로를 가꾸 교통로를 개발하자’ 등의 제안을 했다. 교수는 지역 노령화를 연구하고, 학생들은 공부하고, 주민들은 참여한다. 나미끼 거점은 대학과 마을을 잇는 ‘거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